

민주, 비리 광주시의원 2명 제명

“의원직 박탈” 여론 속 폭력 연루 4명 추가 징계 검토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잇단 비리·추태로 18년 지방자치기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24일 자당 소속 광주시의회 김월출·김남일 의원을 전격 제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4·9총선에서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지방의원 3명을 해당행위자로 제명할 바 있다. 하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원이 소추되거나 판결을 받기 전에 제명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민주당이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에 대한 주민소환을 미리 차단하고, 서울시 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뇌물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적 공세를 가속화 하기 위해 취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 있는 인물을 광주시의원으로 공천했던 민주당이 정작 이들의 비리가 사회문제화 된지 한참만에야 제명한 것은 때늦은 조치라는 지적과 함께 전원 민주당 소속인 광주시의회가 당에서 제명된 이들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결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민주당은 24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최근 사기혐의로 구속된 광주시의회 김남일 의원과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월출 의원을 제명하기로 하고 이를 25일 최고위원회의에 회부했다.

민주당 윤리위원회는 성추행 의혹이 다시 제기된 S의원에 대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 이상 경과했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S의원 등 광주시의원 4명에 대해서도 추가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녀를 동구청 계약직에 취직시켜 물의를 빚은바 있는 광주 동구의회 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기초의원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실사를 통해 징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신낙균 민주당 윤리위원장은 “광주·전남지역은 민주당의 근간으로 해당 기초·광역의원들은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문제가 제기된 지역에는 즉각적인 실사를 하는 등 윤리위원회 활동을 더욱 강화, 엄격한 징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무안 연꽃축제 오늘 개막 '2008 대한민국 연(蓮) 산업축제'가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무안군 일로읍 회산 백련지에서 개최된다. 축제 개막을 하루 앞둔 24일 회산 백련지를 찾은 관광객들이 만개한 연꽃을 즐기고 있다. /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7천억 투입 신불자 72만명 구제

정부가 7천억원을 투입해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72만명의 연체자를 탕감하고 장기간에 걸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또 법인이 종업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저야 하는 형사책임을 완화하고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현행 징역형이나 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낮춰 기업과 개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했다. 하지만 빚을 제때 안 갚아도 되고 법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과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정부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1단계로 9월부터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1천만원 이하를 연체하고 있는 46만명의 체권을 사들여 연체자를 전액 감면하고 최장 8년 이내에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2단계로 이런 채무 재조정 대상을 1천만~3

천만원의 연체자 26만명으로 확대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에 관계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연희뉴스

유망직업 장려 55년 역사와 전통

공유 내로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www.nabuniv.ac.kr

신입생 모집

새로운 미래의 시작

전남과학대학
 www.jnsci.ac.kr



- 농어촌 학교 마을도서관 조성 업무협약 체결 -
 2008. 7. 24(목)

농어촌지역 학교 마을도서관 조성 업무협약식이 24일 전남도청 정약용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신항락 광주일보 편집국장, 김장환 전남도교육감,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수연 (사)작은도서관을만드는사람들 대표, 최취영 (주)NHN사장. /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전남 '학교 마을도서관' 연내 10곳 조성

광주일보사, 전남도, 도교육청, 작은도서관을, NHN 업무 협약



농어촌 어린이와 지역 주민들에게 독서습을 일으키기 위한 '학교 마을도서관' 조성운동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사회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도서관 조성 열풍이 전남도를 비롯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일보사와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사)작은도서관을만드는사람들, (주)NHN(네이버) 등은 24일 전남도청에서 '농어촌지역 학교 마을도서관 조성 업무협약'을 가졌다.

'농어촌 학교 마을도서관 조성 사업'은 공공도서관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학교 도서관을 마을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각 도서관에는 3천여 권의 책이 기증되며 야간에는 지역주민에게도 개방된다.

전남도는 이날 협약을 통해 학교 마을도서관 자료 확충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일선 시·군과 분담 지원하게 되며, 전남도교육청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

고, 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작은도서관을만드는사람들과 (주)NHN은 도서관 자료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비용을 지원하며, 광주일보사는 도서관 조성 및 독서 붐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전남에는 신안 중도초등학교와 강진 칠랑초등학교 등 12개 학교에 마을도서관이 조성되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10개 학교에 마을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국적으로는 128개의 학교 마을도서관이 들어서 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학교 마을도서관 조성사

업은 전남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서, 앞으로는 먼 단위마다 1개씩의 도서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사)작은도서관을만드는사람들 대표는 "기자시절 취재를 하며 선진국의 비결은 책에서 나오는 바쁜 가치관이었다는 것을 느꼈다"며 "학교 마을도서관이 전남도의 인재육성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취영 (주)NHN 사장은 "정보의 격차, 지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서관 조성사업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

광주용봉2, 5년임대 입주자 모집

신항림수 2008년 8월 4일~6일

당락규모 총 263호
 81㎡형 60호, 112㎡형 198호

전면주택 7월 19일개방(사당지구내)

임대문의 견본 주택 0361-6801
 도시개발사업팀 0360-0668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피부과학, 식물 유기자료를 주성분이다

TOPE